

미안하다, 못믿었다... 코리안 메이저리거 3명 '혈값 톱10'



3위 강정호 \$2,500,000

타율 0.283·8홀런·23타점·장타율 0.596

1위는 '9승' 커쇼 "3200만달러도 부족해"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MLB) 혈값 계약 대표 사례로 나란히 꼽혔다. 미국 야구스포츠는 14일 올 시즌 연봉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이름을 올린 건 클레이턴

커쇼(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호세 알투베(휴스턴 애스트로스)에 이어 3위로 소개된 강정호다. 지난해 9월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강정호는 기나긴 재활을 마치고 올해 5월 7일에야 메이저리그에 복귀했다. 복귀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치며 '강쇼'를 선보인 강정호는 올 시즌 타율 0.283(99타수 28안타), 8홀



6위 이대호 \$1,000,000

타율 0.296·10홀런·출루율 0.333·장타율 0.574

런, 23타점, 장타율 0.596으로 순항 중이다. 야구스포츠는 "강정호의 계약은 특별하다. 피츠버그는 올해 250만 달러, 앞으로 3년간 고작 1125만 달러만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이 매체는 "강정호의 혈값 계약에 비견할만한 선수로는 밀워키 브루어스와 5년 1250만 달러에 도장을 찍은 조너선 루크로이가 있다"며 "루크로이는 올 시즌 최고의 포수로 활약 중이지만 그가 받는 돈은 425만 달러뿐"이라고 했다.

이어 피츠버그가 강정호를 이처럼 썩 값에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로는 "메이저리그 팀들이 한국인 선수들의 리그 적응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강정호는 앞으로 3년간 1125만 달러를 받는데, 올해 1125만 달러를 받는 선수는 약 100명에 이른다"면서 강정호가 몸값 대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호는 6번째 혈값 계약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7위 오승환 \$2,500,000

33.20닝 평균자책점 1.60

야구스포츠는 "이대호의 기본 연봉은 100만 달러다. 심지어 이대호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당시 시애틀에서 보장된 자리가 없었다. 그는 단지 기회를 원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는 플래툰 1투수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좌우 투수를 가리지 않고 치고 있다. 108타수에 홈런 10개, 타율 0.296, 출루율 0.333, 장타율 0.574를 기록 중인 이대호는 시애틀이 로스터 진입 보너스로 25만 달러를 지급했고, 타석당 인센티브로 100만 달러 정도를 더 주게 되겠지만 올

시즌 최고의 혈값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오승환은 이대호에 이어 7위에 소개됐다. 오승환은 올 시즌 33%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1.60을 기록 중이다. 이 매체는 오승환에 대해 "세인트루이스는 오승환에게 250만 달러만 주면 되는데, 오승환은 올스타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 시즌 내셔널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 자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극찬했다. /연합뉴스



김주찬, 지금처럼만

타율 0.332·안타 74·홀런 8개·40타점...수비도 만점
500타점·2000루타 이어 35번째 1400안타 '눈앞'
'유리알' 오명 벗고 전경기 출장 "풀타임보다 팀 성적"

"하다 보니까 된다"는 김주찬이다. KIA 타이거즈 외야수 김주찬에게는 더 바랄 게 없는 시즌이다. 김주찬은 14일 두산과의 홈경기 전까지 0.332의 타율을 찍으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74개의 안타를 만들어 냈다. 지난 시즌 18개의 홈런을 터트리면서 자신의 역대 최다 홈런 개수를 두 배로 늘린 그는 올 시즌에도 8차례 그라운드를 돌았다. 그는 정교하면서도 파워 있는 타격을 바탕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인 선수이기도 하다. 김주찬은 57경기에서 40타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98경기에서 만들었던 자신의 역대 최다타점(62)을 넘어설 기세다. 찬스에 강한 김주찬이다. 주자가 앞에 있을 때 타율이 0.381, 득점권 타율은 0.463까지 올라간다. 꾸준하고 화려한 타격에 그의 이름 앞에 기록들이 쌓여가고 있다. 4월15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타이거즈 역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된 그는 500타점(통산 71번째), 2000루타(통산 40번째)에 이어 1400안타(통산 35번째) 고지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좌익수 자리를 맡아 한층 고강도화되면서도 안정된 수비까지 선보이면서 공수에서 빈틈이 없다. 무엇보다 '유리알'이라는 오명을 벗고 팀에서 유일하게 전 경기 출장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김주찬의 2016시즌이 더욱 특별하다. 김주찬이 말하는 비결은 "하다 보니까"이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마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잘 풀린다는 의미다.

김주찬은 "감독님께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잘 해주시고 몸 상태가 좋다. 예전처럼 무모하게 뛰는 것도 없고 하나가 부상 없이 뛰고 있다. 수비도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다"며 "수비가 나가면 힘들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면에서는 지명타자로 뛰는 것보다는 감을 잡는데 좋은 것 같다.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게 타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편하게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 지난 시즌부터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장타력이다. 웨이트를 통해 키운 파워가 장타로 연결되고 있다. 김주찬은 "웨이트를 많이 하니가 장타

가 늘어난 것 같다. 주자 없을 때는 한 번씩 욕심을 내면서 스윙을 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팀의 부진이 아쉬운 김주찬이다. 김주찬은 풀타임이라는 목표보다는 매일 경기에 집중하면서 팀 성적에 기여를 하겠다는 각오다. 김주찬은 "3번이든 어느 자리든 상관없다. 팀이 많이 이겨야 하는데 팀 성적이 좋지 못해서 아쉽다. 풀타임에 대한 욕심은 없다. 목표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 야구 KIA와 삼성의 경기에서 삼성 6회초 배영섭의 타구를 KIA 김주찬이 호수비로 잡아냈다. <KIA 타이거즈 제공>

"3군 등판 임창용, 아프지만 앓으면"

덕아웃 T 특·특

▲다음에 또 해보자고 했어요 = 첫 선발 데뷔전에서 승리투수가 됐던 '아기 호랑이' 정동현. 그에게는 '형제 동반 승리'라는 또 다른 꿈이 남아있다. 지난 10일 정동현과 함께 친형인 kt의 정대현이 선발로 출격하면서 형제가 나란히 선발로 이름을 올리는 이색 기록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날 정대현도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형제의 동반 승리가

는 또 다른 기록 달성이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형'은 불펜의 난조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날씨 변수가 없다면 두 선수는 전할 수 있다. 정동현은 "형이 다음에 로테이션이 되면 또 해보자고 했다"며 다음 선발날을 기대했다. KIA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부상에서 복귀한 임준혁과 좋은 피칭을 선보인 정동현으로 선발로테이션을 운영한다. ▲자동차가 날아오는 것 같아요 = 고졸 루키 이진영은 매일 상대해 본 적이 없는

각 팀의 쟁쟁한 투수들의 공과 씨름하면서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공이 맞지 않는다"며 고민을 하던 이진영. 가장 기억에 남는 공으로 넥센의 마무리 김세현을 떠올렸다. 이진영은 "시범경기에서 상대해봤는데 자동차가 날아오는 것 같았다. 그냥 돌이 들어왔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프지만 앓으면 = 임창용이 KIA에서 첫 실전피칭을 소화했다. 임창용은 14일 함평 헬렌스 필드에서 열린 연천 미라클과의 3군 연습경기에서 등판해 1이닝 2K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였다. 직구와 커브만 구사한 임창용의 직구 최고 스피드는 146km까지 찍혔다. 김기태 감독은 "단점 있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상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아프지만 앓으면"이라는 말로 징계가 풀리면 바로 임창용을 불러들일겠다는 뜻도 밝혔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한국 야구위원회로부터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임창용은 KIA의 73번째 경기부터 정식으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 kt와의 퓨처스 경기에서도 복귀를 위한 투수들의 피칭이 있었다. 지난 11일 소프트뱅크 3군과의 교류전에서 첫 실전피칭에 나선 한승혁이 2이닝을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0km. 광정철도 1이닝을 소화하면서 2피안타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세 번째 퓨처스 경기에 나온 김윤동은 1이닝 6피안타(피홈런) 1볼넷 1탈삼진 6실점으로 부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복귀전 홈런...추신수는 '제값'

박병호 3경기 연속 무안타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는 부상을 털고 복귀한 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다. 하지만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는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다. 추신수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O.co 콜리세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방문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4월10일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부상자명단에 올라갔던 추신수는 지난달 21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이번 시즌 두 번째 부상자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고는 24일 만인 이날 다시 복귀전을 치렀다. 추신수는 1-10으로 끌려가던 5회초 1사 주자없는 가운데 상대 선발 원손 투수 손 마나에야와 풀카운트 대결을 벌인 끝에 8구 시속 143km 직구를 때려 가운데 데 맞장을 냈다. 이번 시즌 첫 홈런이자 메이저리그 통산 140번째 홈런이다. 추신수의 마지막 홈런은 작년 10월 3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서 나왔다. 추신수는 나머지 네 번의 타석에서는 볼넷 하나와 버타 3개를 기록했다. 아웃된 타석에서도 추신수는 줄곧 배트 중심에 맞춰 좋은 컨디션을 뽐냈다. 추신수는 4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고, 타율은 0.200(20타수 4안타)이 됐다. 추신수는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7회말 1사 후 데니 발렌시아의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내 수비 감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했다. 텍사스는 5-14로 대패했지만, 39승 25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지켰다. 박병호는 여전히 부진 탈출 실패를 찾지 못했다. 박병호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6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볼넷 1개로 경기를 마쳤다. 박병호의 시즌 타율은 0.207(188타수 39안타)로 떨어졌다. 9일 마이애미와의 경기를 끝으로 그의 안타는 '39'에 묶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골프, 인터내셔널 크라운 1번 시드

<박인비·김세영·전인지·양희영>

호주·대만·중국과 A그룹

한국여자골프가 오는 7월 21일(이하 현지시간) 개막하는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1번 시드를 받았다. 대회조직위원회는 12일 끝난 위민스 PGA 챔피언십 결과까지 반영된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박인비(28·KB금융그룹), 김세영(23·미래에셋), 전인지(22·하이트진로), 양희영(27·PNS)으로 출전 선수가 확정된 한국에 1번 시드를 부여했다. 출전이 확정된 선수가 부상 등으로 불

참하는 경우 이후 세계랭킹 변동과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차순위인 장하나(24·비씨카드)가 대신 출전한다. 총 8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호주, 대만, 중국과 A그룹에 편성됐고 B그룹에는 미국, 일본, 태국, 잉글랜드가 들어갔다. 미국 일리노이주 거니의 메리트 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사흘간 포볼 매치플레이어를 벌여 각 그룹 상위 2팀과 와일드카드 한팀이 대회 최종일 싱글 매치플레이어에 진출한다. 포볼 매치플레이어를 포함, 나흘간의 성적을 합산해 우승팀을 가린다. /연합뉴스